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153-3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국민들은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2021. 11. 02.

담당자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주요 결과

-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근로환경과 근로자의 생활 여건 개선 차원에서 ‘주4일 근무제’가 화두에 올랐다.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연평균 실근로시간은 1,908시간으로 전 세계 3위에 올랐다. OECD 평균인 1,687시간과 약 220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통계청, ‘근로자당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RTITLE&menuId=M_02_01&outLink=Y&entrType=#content-group). 덴마크와 스웨덴 등 일부 유럽에서는 주4일 근무제를 법제화하거나 시범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주4일 근무제 시행에 대한 입장과 해당 제도가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다. 특히 연령과 직장 지위에 따른 차이를 살펴 개인이 마주한 환경에 따라 제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음을 파악했다. 본 조사는 2021년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주4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나, 자영업자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 응답자 3명 중 2명은 임금이 감소한다면, 주4일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4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44%는 임금 감소 시 주4일 근무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 주4일 근무제가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60% 이상이 영향이 크다고 답한 반면, 자영업자는 절반 이하만이 본인의 삶에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
- 휴일이 하루 늘어날 경우,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쉬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월요일이 뒤를 이었다.
- 하루 늘어난 휴일에 하고 싶은 것으로는 건강관리와 취미생활, 여행 순이었다. 20대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휴식을 하고 싶다는 응답, 친구 및 지인과의 모임을 갖겠다는 응답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여행을 가고 싶다는 응답은 50대와 60세 이상에서 높았고, 30대는 자기계발을 할 것이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1 주4일 근무제 찬반 의견

주4일 근무제 찬성 51%, 반대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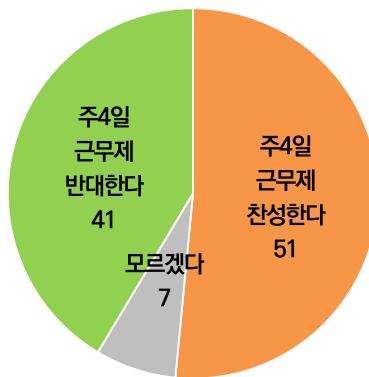
20·30대와 임금근로자에서는 찬성 의견이, 60세 이상과 자영업자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

주4일 근무제 도입 의견을 묻은 결과, 2명 중 1명(51%)은 주4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입장은 찬성 응답보다 10%포인트 낮은 41%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도입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특히 20대(73%)와 30대(70%)에서 찬성 응답이 70%를 넘어섰다. 직장지위 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고(정규직 67%, 비정규직 51%), 자영업자(61%)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주4일 근무제 찬성 51%, 반대 41%

연령이 낮을수록, 임금근로자의 찬성 응답 높아

(단위 : %)



(단위 : %)

	사례수 (명)	찬성한다 (전적으로+그런 편)	반대한다 (매우+그런 편)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51	41	7	100
연령					
18-29세	(176)	73	19	8	100
30-39세	(152)	70	20	10	100
40-49세	(185)	55	35	9	100
50-59세	(194)	47	49	4	100
60세이상	(293)	29	65	6	100
직장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349)	67	30	3	100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61)	51	41	8	100
자영업자	(131)	32	61	7	100
비경제활동	(359)	44	45	11	100

질문: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어떤 의견이십니까?

비고: 찬성한다(전적으로 찬성+찬성하는 편)/반대한다(매우 반대+반대하는 편)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1. 10. 15. ~ 10. 18.

임금이 감소한다면, 주4일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다 64%

주4일 근무제 도입 찬성 응답자 중에서도 44%는 임금 감소 시 주4일 근무 하지 않겠다 답해

주4일제 근무를 도입할 경우,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임금(월급)도 줄어 들 수 있다.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주 4일 근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임금이 감소한다면 주4일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주4일 근무를 하겠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모르겠다 7%). 주4일 근무제 도입 찬성 응답이 51%임을 감안했을 때, 주4일 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임금 유지가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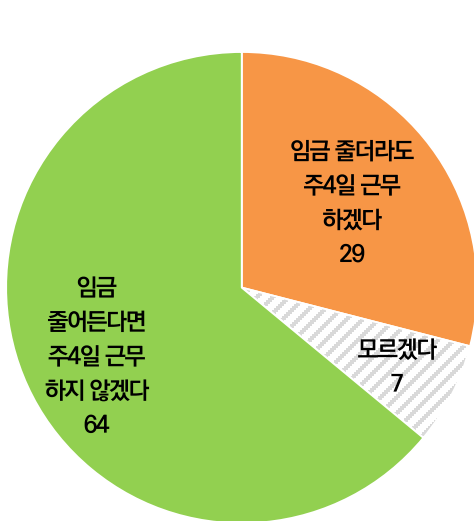
전 연령대에서 임금 감소 시 주4일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다만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임금이 줄더라도 주4일 근무를 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아졌다(20대 41%, 30대 38%, 60세 이상 21%). 정규직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61%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69%가 임금이 감소한다면 주4일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4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임금 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주4일 근무를 하겠다는 응답이 49%, 임금 감소 시 주4일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4%로 의견이 나뉘었다. 주4일 근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88%가 임금 감소 시 주4일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임금이 감소한다면 주4일 근무 하지 않을 것이다 64%

(단위 : %)

주4일 근무제 도입 찬성 응답자 중에서도 44%가 임금 감소 시 주4일 근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응답자 특성별 결과 비교

18-29세	41	11	48
30대	38	7	55
40대	29	8	63
50대	26	6	68
60세 이상	21	5	75
정규직 임금근로자	35	4	61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26	6	69
자영업자	28	9	64
비경제활동	26	10	64
주4일 근무제 도입 찬성	49	7	44
주4일 근무제 도입 반대	7	6	88

질문: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임금(월급)도 줄어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1. 10. 15. ~ 1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주4일 근무제 도입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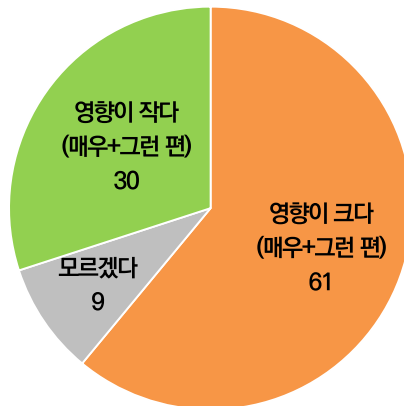
주4일 근무제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61%

현재 우리나라는 주5일 근무와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4일 근무제를 법제화한다면, 법적 허용 근무시간이 축소됨에 따라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 물었다. 10명 중 6명(61%)은 주4일 근무제 도입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답했고 영향이 작을 것이라는 응답은 30%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주4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응답도 높았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도 60%가 넘는 비율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 자영업자의 43%는 영향이 작다고 응답했는데 제도 도입이 업장 운영 일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주4일 근무제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61%, 작을 것 30%
20대와 30대, 정규직 임금근로자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 높아

(단위 : %)



(단위 : %)

	사례수 (명)	영향이 크다 (매우+그런 편)	영향이 작다 (매우+그런 편)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61	30	9	100
연령					
18-29세	(176)	75	19	6	100
30-39세	(152)	74	18	8	100
40-49세	(185)	68	24	8	100
50-59세	(194)	60	31	10	100
60세이상	(293)	42	47	11	100
직장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349)	77	19	5	100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61)	61	30	10	100
자영업자	(131)	47	43	10	100
비경제활동	(359)	51	37	12	100

질문: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귀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비고: 영향이 크다(매우 작다+큰 편)/영향이 작다(매우 작다+작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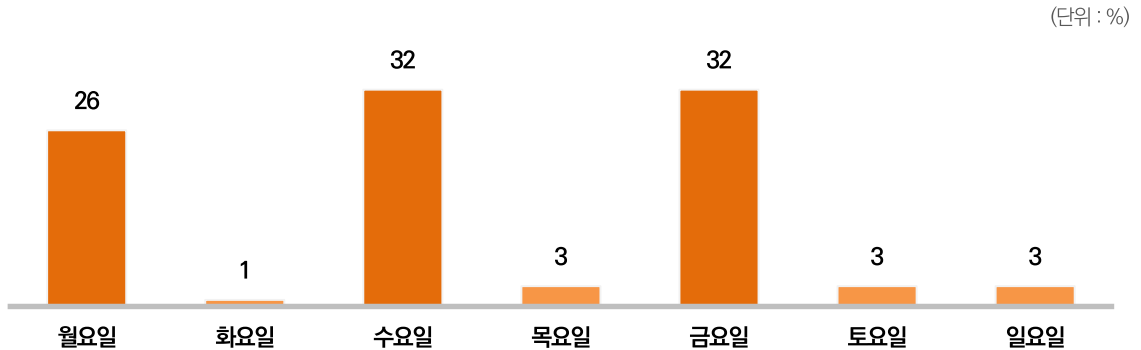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1. 10. 15. ~ 10. 18.

휴일이 하루 늘어난다면 수요일(32%), 금요일(32%)에 쉬고 싶다는 응답 높아

사적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한다면, 어떤 요일을 휴일로 간주하고 싶은지 물었다. 수요일과 금요일이 각각 32%로 가장 높았고, 월요일이 26%로 뒤를 이었다. 1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에 하루를 쉬며 재충전을 하거나, 주말과 붙여 휴식을 취함으로써 더욱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요일(1%)이나 목요일(3%)을 꼽은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휴일이 하루 늘어난다면 쉬고 싶은 요일은 수요일과 금요일, 월요일이 다수



(단위 : %)

	사례수 (명)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계
전체	(1,000)	26	1	32	3	32	3	3	100
연령									
18-29세	(176)	17	2	49	4	25	2	1	100
30-39세	(152)	25	3	30	4	33	3	2	100
40-49세	(185)	32	1	24	2	35	5	2	100
50-59세	(194)	28	0	27	5	34	3	4	100
60세이상	(293)	26	0	32	2	32	4	5	100

질문: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된다면, 어느 요일을 휴일로 간주하고 쉬고 싶으신가요? 현재 일이 있으신 분은 지금 하는 일을 기준으로, 현재 일이 없으신 분은 앞으로 일을 갖게 될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해 주세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1. 10. 15. ~ 10. 1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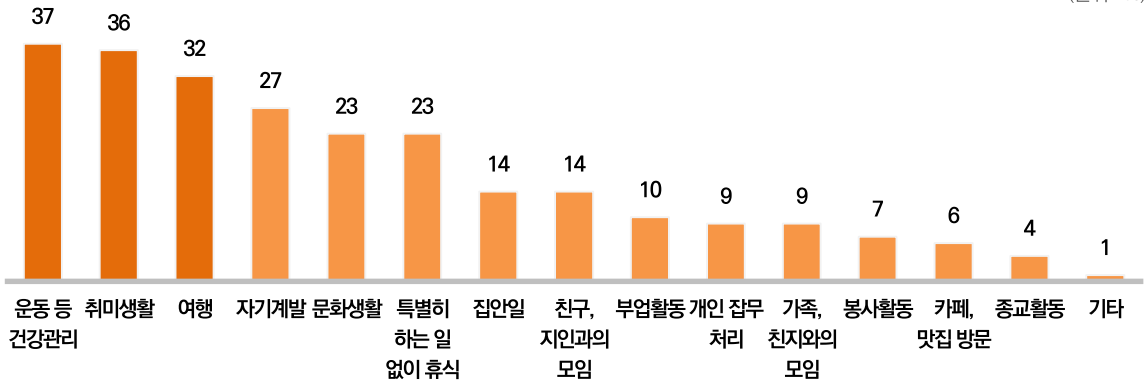
휴일에 하고 싶은 것, 건강관리와 취미생활, 여행 순 연령 별로 휴일에 선호하는 활동에 차이가 있어

주4일 근무제 도입으로 하루를 더 쉬게 되면, 운동 등 건강관리(37%), 취미생활(36%), 여행(32%)을 하겠다는 응답이 높았고 자기계발(27%), 문화생활(23%),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휴식(23%)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선호하는 활동에 차이를 보였는데 20대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휴식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39%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고, 친구 및 지인과의 모임을 갖겠다는 응답(23%)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여행을 가고 싶다는 응답은 50대(37%)와 60세 이상(39%)에서 높았고, 30대는 자기계발을 할 것이라는 응답이 37%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휴일에 하고 싶은 것, 건강관리와 취미생활, 여행 순
20대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휴식, 50세 이상은 여행을 꼽은 응답 높아

(단위 : %)



(단위 : %)

	사례수 (명)	운동 등 건강관리	취미생활	여행	자기계발	문화생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휴식	집안일	친구, 지인과의 모임	부업활동	개인 잡무 처리	가족, 친지와의 모임	봉사활동	카페, 맛집 방문	종교활동	기타
전체	(1,000)	37	36	32	27	23	23	14	14	10	9	9	7	6	4	1
연령																
18-29세	(176)	31	40	18	28	27	39	11	23	6	12	4	4	7	2	0
30-39세	(152)	33	32	31	37	28	22	14	18	12	10	15	1	8	3	1
40-49세	(185)	36	34	29	29	24	22	16	8	13	8	9	2	6	4	2
50-59세	(194)	39	35	37	24	18	21	17	12	13	8	7	9	5	2	2
60세이상	(293)	44	37	39	23	21	16	14	11	7	8	9	13	3	7	0

질문: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되어 지금보다 하루를 더 쉴 수 있다면, 어떤 것을 하실건가요?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현재 일이 있으신 분은 지금 하는 일을 기준으로, 현재 일이 없으신 분은 앞으로 일을 갖게 될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최대 3개까지 선택)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1. 10. 15. ~ 10.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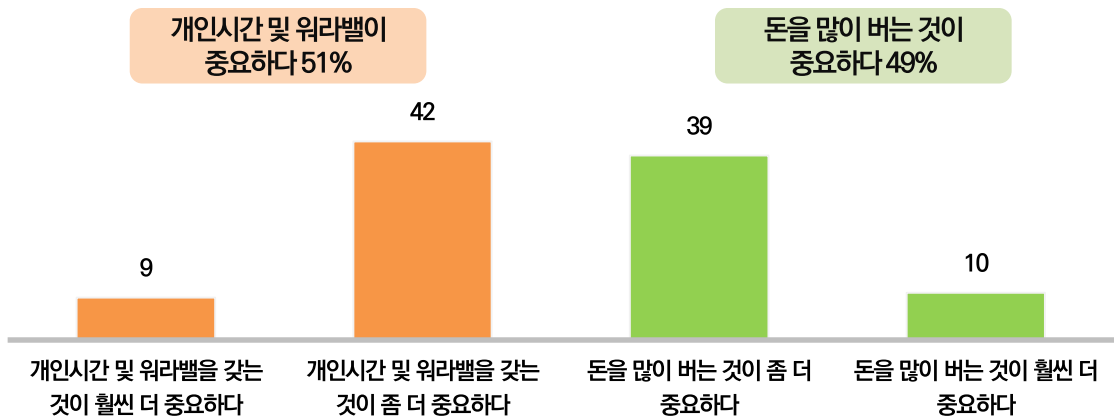
3 돈을 많이 버는 것 vs 워라밸

개인시간 및 워라밸이 더 중요하다 51%,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 49%

이번 조사에서 개인시간 및 워라밸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51%,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49%로 큰 차이가 없었다. 20대와 30대,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개인시간 및 워라밸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고, 40대와 50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진보층에서는 개인시간 및 워라밸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58%로 더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55%로 더 높았다.

개인시간 및 워라밸이 더 중요하다 51%,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 49%

(단위 : %)



(단위 : %)

	사례수 (명)	① 개인시간 및 워라밸을 갖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	② 개인시간 및 워라밸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①+② 개인시간 및 워라밸이 중요하다	③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④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	③+④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다	계
전체	(1,000)	42	9	51	10	39	49	100
연령								
18-29세	(176)	49	7	56	9	35	44	100
30-39세	(152)	48	6	54	11	35	46	100
40-49세	(185)	35	10	45	14	41	55	100
50-59세	(194)	35	9	44	10	45	56	100
60세이상	(293)	44	11	55	9	37	45	100
이념성향								
진보	(279)	48	10	58	7	35	42	100
중도	(387)	41	9	50	11	38	50	100
보수	(292)	38	7	45	11	43	55	100

질문: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1. 10. 15. ~ 1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1년 9월 기준 약 64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1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13,086명, 조사참여 1,263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7.6%, 참여대비 79.2%)
조사일시	• 2021년 10월 15일 ~ 10월 18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